

취재기자

-전우주

- 보도본부의
조장으로 가장
강하다.
- 김민수의
대체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 oojoo1119@naver.com

의학과 인문학 그리고 의사와 인권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영역의 학문으로,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자연현상을 다룬다면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의사는 의학이라는 자연과학적 학문을 통해 적절한 처치로 환자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학문적 성과를 목표로 하면서도, 사람을 대하며 의사 본인도 목표를 지닌 사람이다. 이번 취재에선 의학과 인문학과 의 만남 조의 활동과 강의를 통해 의사가 가져야 할 가치탐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의학과 인문학과 의 만남 조의 활동은 조금 독특한데 여러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주최하시는 인문학 및 인권에 대한 토론회의라는 점에서 여러 학교에 방문하여 교수님들의 강의와 토론, 강사분의 강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가치탐구에 대해 배우고 의사이신 교수님들이 이러한 가치탐구들에 대해 어떠한 고민들을 하는지 이해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날은 인권에 대해 다루는 정기적인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대구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등의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동안 인권에 관련된 강의를 청강하고 토론을 나누시고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를 갔을 때는 교수님들의 학생 인권에 관한 토론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강의인 진료현장에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특강이 시작될 때였다.

의료현장에서의 인권강의의 강사님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조현병 등의 환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인권적 측면이 중요하며 정신과 의사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하셨다. 정신과 의사의 인권 교육은 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인권 교육은 비단 정신과 의사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료에 대해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가볍게 하신 후 인권에 대한 주 내용을 말씀하셨다. 강사님의 인권강의의 특별했던 내용은 인권을 개인의 권리와 사회로부터 받을 권리 즉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어 설명하셨다는 점이다.



강사님은 최근 사회는 각 개인의 자유권의 충돌로만 너무 인식되어 개개인들이 책임을 지지만 사실 사회권에 의해 사회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고 개인들은 연대와 투쟁을 통해 국가에게서 사회권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 흡연하는 사람과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각 개인의 권리를 따져 흡연하는 사람이 금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흡연 부스와 같은 것을 국가가 적절하게 제공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든 피는 사람이든 불편하지 않을 권리를 얻어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질문과 토론 시간에 이어진 교수님들의 질문인 ‘사회권을 획득하겠다는 빌미로 오히려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려는 이익집단들의 행태 등의 사회문제’가 충분히 이러한 연대를 통한 사회권 획득에 있어 충분히 주의할 점이며 인권에 있어서도 아주 명쾌한 답은 없고 적절한 고민과 선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큰 행사였던 만큼 간단한 식사 및 정기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축하자리가 있었고 교수님들의 축하 말씀들이 있던 후 활동이 끝났다. 밥을 먹는 동안 참여한 1 조 조원들과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다.

의학과 학생으로서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의사가 되면 환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하는 것과 환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우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환자를 효율적으로 살리는 것을 우선할 것인지 인권을 더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로서 우리가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해진 답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인권과 환자의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또한 교수님으로서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많은 부분에 있어 노력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좋은 활동이었고 정기적인 의료인문학 한마당 행사가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상상의 동물 : 건강한 본 1

조선시대때는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는 말이 있었다면 2019년에는 울면 근손실이 온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근손실을 막기위해 모인 의료인문테마스쿨 2 조 건강한 의대생활의 김인환 교수님과 본과 1 학년 강홍구 김희진 김도영 임륜기가 이번 취재의 주인공들이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부터 2 조는 매우 인기가 많았던 조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조였다. 그만큼 의과대학생들이 단순히 학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다른 취미생활들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조는 먼저 체중과 BMI 등을 잰 후 각자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달라진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운동을 통해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바라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단순히 다이어트나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동 그 자체를 통해 피폐한 의대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큰 목적이었다고 한다.

회식 때 김인환 교수님은 건강한 의대생활이라는 취지에 맞게 회식에서도 술은 한종류만 시키시고 탄수화물을 시키시지 않고 단백질 위주의 회식을 진행하셨다. 또한 회식을 진행하시면서 조원들에게 의대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여러가지 힘든 점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뜻 깊은 충고들을 하셨다. 교수님께서 이번 의인테는 건강한 의대생활이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건강을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차원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셨다.

사실 본 1 의 생활 패턴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정해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원들도 시험에 치여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교수님께서 본과 1 학년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위해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더 안 좋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자신도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힘들어서 다른 일들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다.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본과 1 학년은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같이 병행하기를 권고하셨다.

이날 회식이 끝나고
또 술을 마셔서 크게
의미는 없었다고 한다.

취재기자
-정준교



취재를 하던 도중 또 한 분의 교수님께서 바쁘신 도중에 조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기 위해 들르셨다. 바로 의학통계학 교실의 곽상규 교수님 이셨다. 교수님께서서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좋은 조언을 잘 해주기로 유명하셨는데 본과 1학년 학생들에게 삶의 낙을 찾으라는 조언을 해 주셨다. 거창하게 삶의 낙을 찾기 위해 고민할 것 없이 하고싶은 걸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낙이 더 커져야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셨다. 김인환 교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계속 취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할 수 있는 취미와 할 수 없는 취미가 생긴다고 하셨다. 그래서 취미가 사라지게 되면 그런 만큼 취미를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단순히 몸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 앞산에 가서 배드민턴을 친다 거나 혹은 볼링장에 가서 친구들과 볼링을 친다든가 하는 운동이 취미가 되고 취미가 삶의 일부가 되어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건강한 회식을 위해 매우 일찍 회식자리를 마쳐 주셨다.

곽상규 교수님의 한마디

“흥구는 이타적인
사람이다”

이번 취재에서 2 조 조원들과 교수님께서 결국 말하고자 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운동 같은 한가지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취미이자 하나의 삶의 낙으로서 자신의 여가시간에 여유를 주기도 하면서 때로는 또다른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 덩으로 건강한 육체까지 얻을 수 있는 운동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건강해짐은 언제나 열려 있다.

커피 한 잔 속의 세계

평소에는 커피의 맛이
아닌 카페인의 양이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든 커피를 마실 것이다.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글쓴이 또한 커피를 마시며 본과 1학년 3Q를 버티고 있다. 직장인에게는 식사 후 잠시의 여유를, 아주머니들에게는 한가로운 오후를 선사한다. 하지만 커피 그 자체로 하나의 취미일 수 없을까? 졸음을 깨기 위해, 커피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가 아닌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기는, 커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 없을까? 급하게 커피숍에서 사서 마시기 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드립해 마신다면 경제적이고 새로운 취미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커피 이즈 더 뉴 블랙’과 함께 라면 할 수 있다!

‘커피 이즈 더 뉴 블랙’은 노운석 교수님, 정진용 교수님이 함께 진행하시는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이다. ‘커피는 의사소통이며 힐링 시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를 모토로 커피 박물관 관람, 문헌고찰 및 바리스타 체험학습을 통해 바쁜 의료인의 삶 속에서 커피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다. 조원으로는 김한결, 김민석, 류재원, 박재용이 있다. ‘커피 이즈 더 뉴 블랙’은 여러 시즌의 의료인문테마스쿨에도 있었고 매번 인기가 많은 주제였다. 노운석 교수님의 커피 수업과 바리스타 체험학습을 통해 커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수업이다. 내가 취재를 간 수업은 바리스타 체험학습 두번째 수업이었다. 바리스타 체험학습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카페이면서 대구커피교육학원도 하고 있는 ‘Table Top coffee’에서 진행되었다. 조원들과 수업을 같이 들으며 단순히 커피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울 만한 마음가짐이 있었다

생두는 로스팅과 원두 추출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맛있는 커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좋은 생두, 두 번째 올바른 추출 과정, 세 번째 추출 변수의 조절이다. 좋은 원재료가 없다면 좋은 커피가 있을 수 없지만, 최고급 원두만이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추출 도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할 수 있는 핸드 드립으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 핸드 드립에는 법이 없다. 다만, 아직 익숙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참고할 만한 핸드 드립 모델이 있을 뿐이다. 핸드 드립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기호에 맞게, 때로는 그날의 기분에 맞게 다른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취재기자

-전형진

사실 이날 커피 냄새를 너무 맡아서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고 한다.



모든 의료인문테마스쿨
News letter 는
medicine.cu.ac.kr 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99%는 물이라고 한다. 단 1% 커피가 어떤 생두를, 어떤 로스팅 방식으로, 어떤 추출 도구를 사용하여 추출했는지에 따라 99% 물을 포함한 전체의 커피의 맛을 바꾼다. 단 1%의 차이가 커피의 수천, 수만가지 맛과 향을 좌우한다. 또한, 커피의 맛과 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다른 음식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개개인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먼저 개인이 커피를 마시는 속도가 맛인지의 차이를 만든다. 커피가 뜨거울 때는 신맛이 주로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식으면 신맛 뒤에 가려졌던 커피의 쓴맛과 단맛이 느껴진다. 너무 빠르게 마셔버린다면 커피의 쓴맛과 단맛을 느낄 수 없다. 조금은 여유를 갖고 즐겨야 그 맛을 심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커피의 향은 개인의 경험 차이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커피에는 원래 수천가지의 향이 있다. 다만 그 수천가지의 향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향을 우리는 커피의 향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전에 향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어떠한 설명과 수식으로도 그 향을 알려줄 수 없다. 오직 내가 직접 느낀 경험이 있어야 그 향을 캐치해 낼 수 있다. 경험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한된 향과, 좁은 시야만을 보게 된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의 맛 속에는 또다른 세계가 있다. 맛있는 커피라는 좋은 결과 뒤에는 올바른 과정이 있다는 것, 커피의 99%는 물이지만 1% 커피의 차이가 전체 맛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 서두르면 느낄 수 없는 맛이 있다는 것을, 준비된 사람만이 더 다양한 향을, 더 넓은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커피 한 잔 속에 담겨있다. 앞으로 여러분의 커피는 단순히 향 좋은 쓴 음료보다는 한 모금으로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취미이길 바란다.

머니가 머니?

머니,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냐 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흔히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의대생 및 의사들은 돈을 잘 벌지만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본과 3학년이나 인턴이 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여행을 다니고 차를 사는 모습들은 사회적으로 빈축을 사기도 한다.

10월 1일 오후, 최병욱 교수님을 필두로 루가관 4층에 모인 진지한 4명의 남자들은 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자본주의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머니가 머니?’ 수업을 계획하신 최병욱 교수님은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그리고 가깝고도 어려운 금융이라는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업을 기획하셨다고 했다.

수업 초반,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지난 모임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금주에 화제가 됐었던 경제 기사를 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은 주로 EBS 다큐멘터리 시청 후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수업에서 다루었던 영상의 주제는 ‘금융 지능은 있는가?’ 였다. 다큐멘터리는 금융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과 비유를 섞어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해주었다. 영상에서는 은행, 펀드, 보험, 파생상품의 운영방식과 허점에 대해 소개하고 영상 주제인 금융지능에 대해 설명했다.



취재기자

-조하연



영상에서 다루었던 은행, 펀드, 보험 등은 사회 초년생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금융상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얼마만큼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선불리 투자한다. 이러한 면에서 돈을 벌기 전 미리 지식을 충분히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금융과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금융용어와 체계를 마주하는 대신 쉽게 회피하곤 한다. 하지만 영상에서 어려운 금융체계를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하는 것을 보며 금융이 생각만큼 접근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는 것이니 만큼 남을 믿지 않고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Living point
 -이번 학기 등록금은
 4,805,000 원이다.

보통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자신의 금융 상태나 계획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학생들도 영상 시청이 끝나고 서로 토의하며 금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느꼈던 바를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였다. 이해하기 힘들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느껴지는 금융개념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을 보며 이들이 금융 분야와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